

도교육청, 정시 집중상담기간 운영

14일부터 21일까지... 전북 진로진학 홈페이지서 사전 신청 후 참여

전북도교육청은 본청 및 6개 교육지원청에서 정시 집중 대면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에서는 오는 14일~21일까지 8층 대입진학지도지원실에서 진행한다.

또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6개 교육지원청에서는 16일

이뤄진다.

교육지원청별 상담 장소는 전주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 2층, 군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익산교육지원청 1층 교육상담실, 정읍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 남원교육지원청 1층 대입지원실, 김제교육지원청 3층 학력지원센터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전북 진로진학 홈페이지(http://www.jbe.go.kr/jnro)에서 '대입대면상담 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사전 신청 후 참여하면 된다. 정시 집중 대면상담 동안 상담신청은 1회에 한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담에는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진학상담교사 40여 명이 참여하며, 상담 진행시에는 수능 성적 자료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진학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화상상담도 제공한다. 화상상담도 신청 방법은 동일하며, 화상상담 신청자는 줌(Zoom)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장은성 기자

연구하는 선생님

성장하는 특수교육

도교육청, 교육학습 공동체

연구성과 공유 발표회

전북도교육청은 4일 2023년 특수교육 분야의 교육학습 공동체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구하는 선생님, 성장하는 특수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발표회는 교육·학습 공동체 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일반화 확산 및 동반 성장 도모를 위한 것으로, 교육학습 공동체 회원 및 희망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아주편한 교실팀이 ‘에듀테크 및 정보화교육 역량강화’를, 연배생팀이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교육과정 설계’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장애학생 정보화교육 연구회와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회를 비롯해 교과연구·정보예술·진로직업 분야의 교사연구회 등 총 20개의 교육학습 공동체가 운영됐다.

교육학습공동체는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수업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제 사례를 나눔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교사 공동체를 말한다. 특히 수업 나눔 및 사례 공유가 쉽지 않은 특수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인근 지역 연합으로 운영했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장애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교사의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4일 전주비전대 행복기숙사에서 학력지원센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올 한해 학력지원센터 성과 공유

도교육청, 성과보고회 열고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진단

학교로 찾아가는 협력수업·기초학력 교사 컨설팅 등 정리

전북도교육청은 4일 전주비전대 행복기숙사에서 학력지원센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력지원센터는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의 학교 밖 역할을 수행, 기초학력 심층진단 및 기관 연계 중재교육을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도내 초·중등 교원 및 업무담당 교육전문직원, 학력지원센터 기초학력 협력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는 2023 학력지원센터 사업 개요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진단 및 중재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협력수업, 기초학력 교사 컨설팅 및 지역 특색을 반영

한 센터별 특색 사업 등 학력지원센터의 일년간의 사업을 정리했다.

이어 2부에서는 학력지원센터 업무담당 장학사 및 기초학력협력교사가 함께 2024년 사업 방향성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본청 및 14개 시군별 학력지원센터가 기초학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등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교실 내-학교 내-학교 밖으로 이어지는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연결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자율전공학부, 경진원서 비전기업탐방 체험학습

국립군산대학교 자율전공학부(학부장 박규연 교수)는 최근 재학생과 교수 등 16명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비전 기업 탐방 체험학습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비전 기업 탐방 체험학습은 경

제통상진흥원의 위상과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과 진로 설정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경진원 김광희 본부장과 혁신전략부 김찬미 담당관은 경제통상진흥원의 주요 업무와 사업내용 및 방향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관근 기자

사회문제 해결형 교육체계 구축

전주대, 임실치즈마을서 사회문제 해결 교육캠프 성료 지정환경공체학교 리빙랩 기반 공유대학 플랫폼 운영 일환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3일 임실치즈마을에서 KIRX(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배태민) 공동으로 3차 사회문제 해결 교육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임실군 23년 RIS 자율과제인 지정환경공체학교의 리빙랩 기반 공유대학 플랫폼 운영 및 사업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상별 사회문제 해결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문제 해결의 이해와 실제’(PKI 컨설팅 대표 박봉수 컨설턴트)라는 주제로 문제를 정의하고, 이슈트리를 사용해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이어 둘째 날에는 ‘육상 기인 해양쓰레기 확산 방지를 위한 하천용 부유 쓰레기 차단시설 개발 및 실증’ 및 ‘ChatGPT를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 방법’(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한민 교수), ‘지역소멸 대응 지역 활성화의 사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혁신단 전호일)와 여러 갈등 상황을 재현해 갈등을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실습했다.

마지막 날에는 임실치즈마을 마



을 만들기의 철학, 임실치즈마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듣고, 치즈테마파크 견학 및 피자 만들기 경험을 했다.

교육에 참여한 충북 무형문화재 위원회 송민선 위원은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국가나 지방정부, 기업체, 지역주민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한 하천용 부유 쓰레기 차단시설 개발 및 실증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였다”며 “과제 완료 후에도 참여집단이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함께 생각했다는 것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과제의 책임자인 전주대 한동승 교수는 “리빙랩,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단편적이고 일회성 교육이 아닌 대안별·단계별 교육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내년부터 ‘천원의 아침밥’ 확대

전북대, 올해 1만7000여명 혜택... 내년 하루 200명으로 늘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내년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주관한 학생지원과는 지난 4월 3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해 11월 30일까지 모두 1만7,400명의 학생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해 하루 200명씩, 모두 2만4,000여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밀착형 학생 복지를 위한 양오봉 총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대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지원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 전북대 총동창회의 지원이 더해져 기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의 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었다.

방학 기간을 제외한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식사를 제공했고, 중

간·기말고사 기간에는 오전 11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해 더 많은 학생들이 든든한 아침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김중석 전북대 학생처장은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대학본부의 강한 실행 의지와 발전지원재단, 동창회 등의 추가 지원이 이어져 다른 대학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하루 식사 인원을 기존 15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 폭도 늘려 더 많은 학생들이 건강한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전북대 정태형 학생(식품공학과 3년) “한 해 동안 천원의 아침밥 덕분에 든든하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더 확대된다는 소식에 너무 기쁘다”며 “우리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복지 제도가 있어 전북대 학생이라는 것이 새삼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